

신안군 '살기좋은 도시' 국제 인증

전 세계 지자체 경쟁 '리브컴 어워즈' 결선 진출 환경관리·사회적 포용성 등 평가...11월 결과 발표

신안군이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는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 결선에 진출했다.

리브컴 어워즈는 1997년부터 시작된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도시의 환경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계적 권위의 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접예한 경쟁을 벌인다. 결선에 진출한 도시는 각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신안군의 결선 진출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안군은 문화유산 보존, 문화·예술이라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1·2차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기후변화 대응도 탄소중립 실천 등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그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있다.

이 같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신안군의 설명이다.

이번 리브컴 어워즈 결선 진출은 앞서 CNN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안군의 퍼플섬과 더불어 국제적 도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이고 있다.

결선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표본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노인 일자리 창출...사회활동 지원 '최우수'

2000개 늘려 전년비 223% 증가 고령자복지주택 기찬발상도 인기

영암군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2023년 사업수행 결과를 종합 판단했다.

영암군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시니어클럽을 설치, 전년 대비 223% 많은 29개 사업을 추진해 현재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 중이다.

올해 1월 어르신들의 경제·복지·건강을 아우르는 '생산적 복지' 정책 하나로 영암읍 고령자복지주택에 '기찬발상'을 열었다.

이 식당은 현재 아이부터 어른까지 찾는 맛으로 자리 잡아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이 찾고 있다.

영암공영터미널에 오픈한 '기찬커피 파백 최선



생'도 지역민의 인기 속에 운영하고 있다.

11월에는 삼호읍에 '기찬빨래방'을 만들어 지역 농·축협과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동 빨래방 사업을 추진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어르신들이 경험을 살려 생

산에 참여하며 경제활동도 하는 영암 생산적 복지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이끌어 냈다"며 "꾸준한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과 활성화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영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돌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를 거쳐 지리적표시 제28호로 공식 등록됐다. 지주식 돌김 채취 모습. <무안군 제공>

무안 지주식 돌김 '지리적표시' 등록

게르마늄 풍부 맛·향 뛰어나...지식재산권·등록 명칭 등 보호

무안군은 '무안돌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를 거쳐 지리적표시 제28호로 공식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지역의 우수한 품질과 역사성이 깊은 특산물에 대해 상표권을 부여해 보호·육성·발전시켜 산업화에 이용하는 제도다.

이번 무안돌김의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무안군 김 양식 어업인은 '무안돌김'의 지식재산권은 물론 등록 명칭을 보호받게 됐다.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무안돌김'은 마른 김과 구

운 김 모두 지주식 방식으로 생산되며, 품종은 잇바디돌김으로 한정해 품질기준을 한층 더 높였다.

잇바디돌김은 일명 '곱창김'이라 불리는 무안군의 대표 김 생산 품종으로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청정해역에서 지주식으로 생산돼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무안 김은 (사)한국김산업연합회에서 주최한 전남 으뜸 김 품평회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수상(최우수상 2회, 우수상 1회)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전 주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어린이·임산부, 다음달 2일부터...65세 이상 어르신은 11일부터

진도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안전한 접종 환경을 위해 연령별로 날짜를 구분했는데, 생후 6개월부터 8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는 지난 20일부터 접종을 하고 있다.

9세부터 13세 어린이, 임산부는 오는 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기관 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이 가능하다.

특히 14세-64세 중 취약계층(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0월 18일부터 진행되며, 14세-64세 일반 진도군민도 10월 25일부터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 및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진도군 보건소(061-540-6043-4)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혜택 확대

근로자 한정 → 여성근로자·자립 준비 여성 포함...조례 개정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신호로 83번길, 120가구)의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목포시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자를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 목련아파트는 '국도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배란다 창호 설치

와 수전 및 출입문 교체 등의 기능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500원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목련아파트는 1994년 13평형(방 2개)의 120가구, 지상12층으로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HD현대삼호, 블라스팅 작업 최적화 도장 기술 MOU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선급 초청 과도한 작업 방지 효율성 극대화

HD현대삼호(대표이사 신현대 사장)가 주요 선급들과 비침수부 블라스팅 작업 최적화를 위한 도장 기술 MOU를 체결하고, 과잉작업 방지와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4일 HD한국조선해양과 DNV, LR 등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선형 블록 블라스팅 표면처리 작업 최적화를 위한 도장 기술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블라스팅(Blasting·연마제 분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작업을 방지하고,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물에 닿지 않는 엔진룸 등 비침수부의 표면처리 기준은 그라인딩 작업을 의미하는 동력공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라인딩 작업보다는 블라스팅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4일 HD한국조선해양과 DNV, LR 등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표면처리 작업 최적화를 통한 도장 생산 경쟁력 강화 MOU' 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삼호 제공>

확보할 계획이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블라스팅 기준 정립으로 선박 건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과잉 작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최적의 인력 운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이로파출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는 25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이마트 오거리 주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멈춤'이란 슬로건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행자가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경찰서이로파출소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새마을부녀회·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서행안전과 일단정지, 신호준수 등을 홍보했다



정광명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소장은 "목포시의 중심지역인 이마트 오거리 등 교통체증 지역에 사회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등을 먼저 챙기는 교

통선문화를 지역단체와 합심해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성료

1300여명 참석 공연 등 이벤트...부부 7쌍 합동결혼식도

완도군은 지난 24일 완도청해진스포츠허브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부부 7쌍의 합동결혼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지체장애인지원회 영암군지회 분회장 등 14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합동결혼식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7쌍의 신랑 신부가 축복 속

에서 화촉을 밝혔다.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7쌍의 부부에게 결혼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어울림 한마당에는 초대 가수 공연, 사·군별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검사를 수행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내일 아트, 이·미용, 장애인 보조기기 이동수리센터 등이 결집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